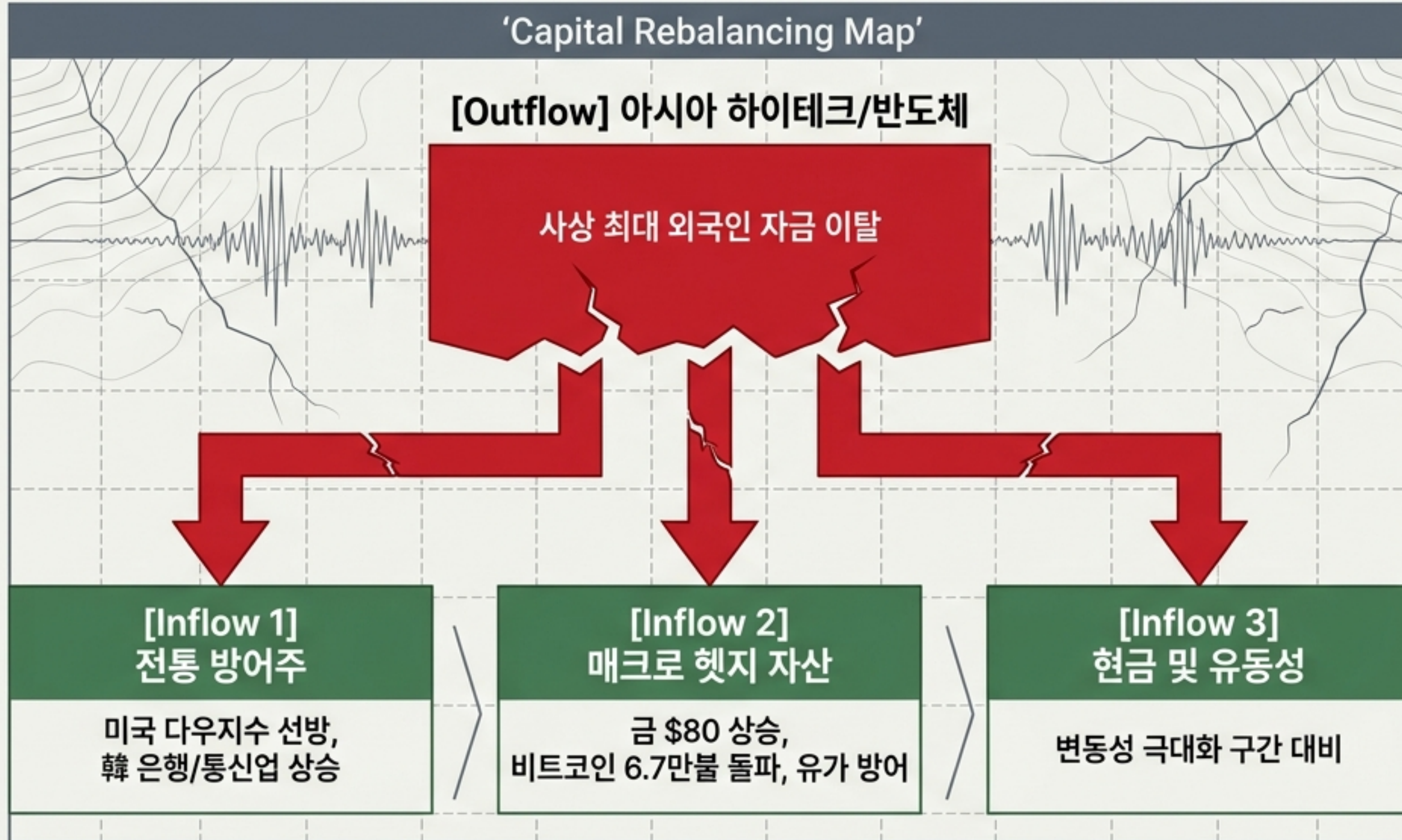


대분절과 자금의 대이동

(The Great Decoupling & Capital Flight)

2026년 7월 17일
글로벌 시장 지각 변동:
AI 반도체 쇼크와
즉각적 대응 전략

패닉셀이 아닌, 빠르고 폭력적인 '자산 재배치(Rebalancing)'의 시작



핵심 인사이트:
AI 슈퍼사이클에 대한 첫 번째 강력한 '피크아웃(Peak-out)'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.

시장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, 과열된 기술주에서 고배당/방어주 및 대체 자산으로 자본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.

진앙지 KOSPI: 나스닥 대비 3배의 롤러코스터 장세

KOSP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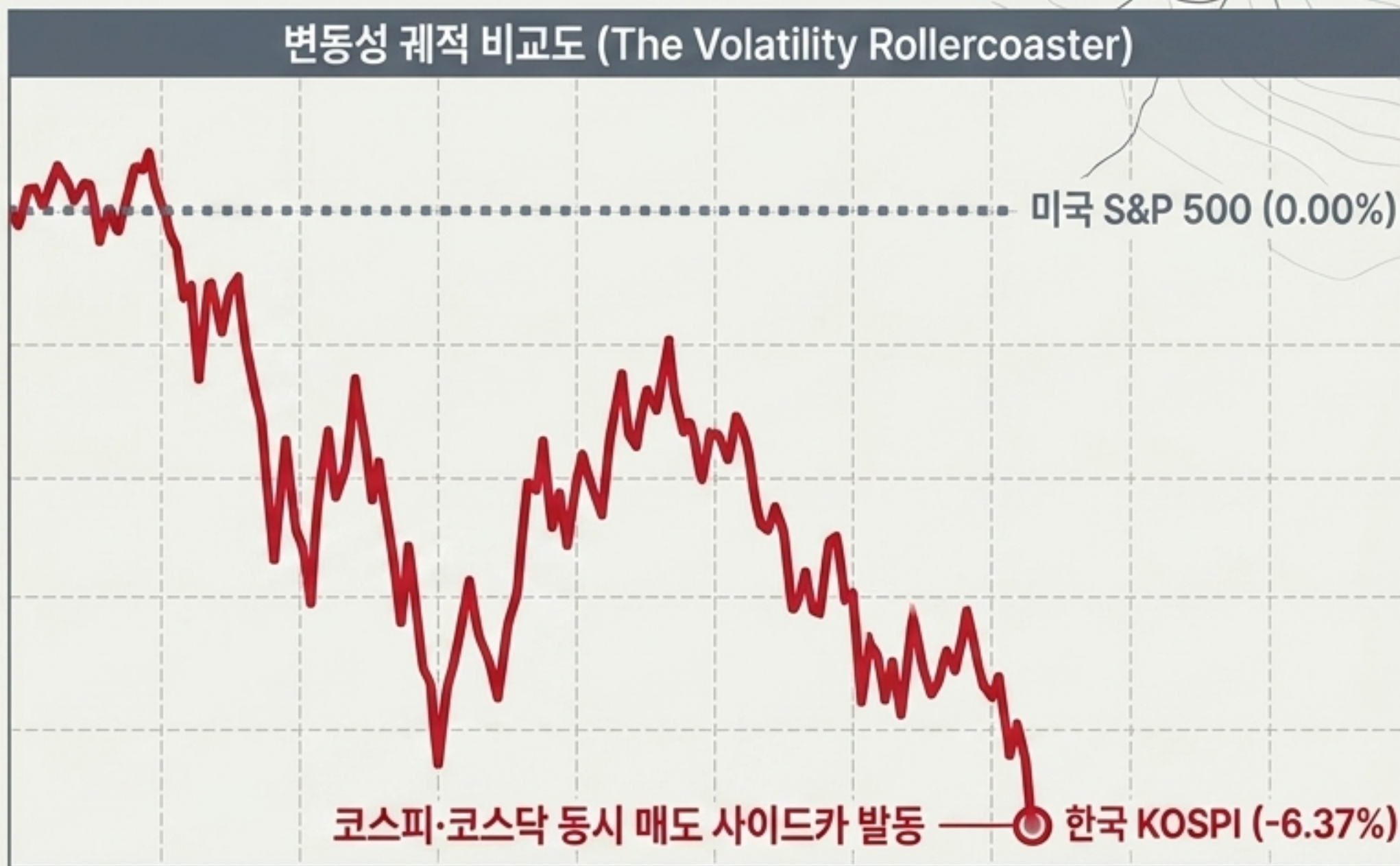
6,820.60 (-6.37%)

하루 만에 7,000선 반납

KOSDAQ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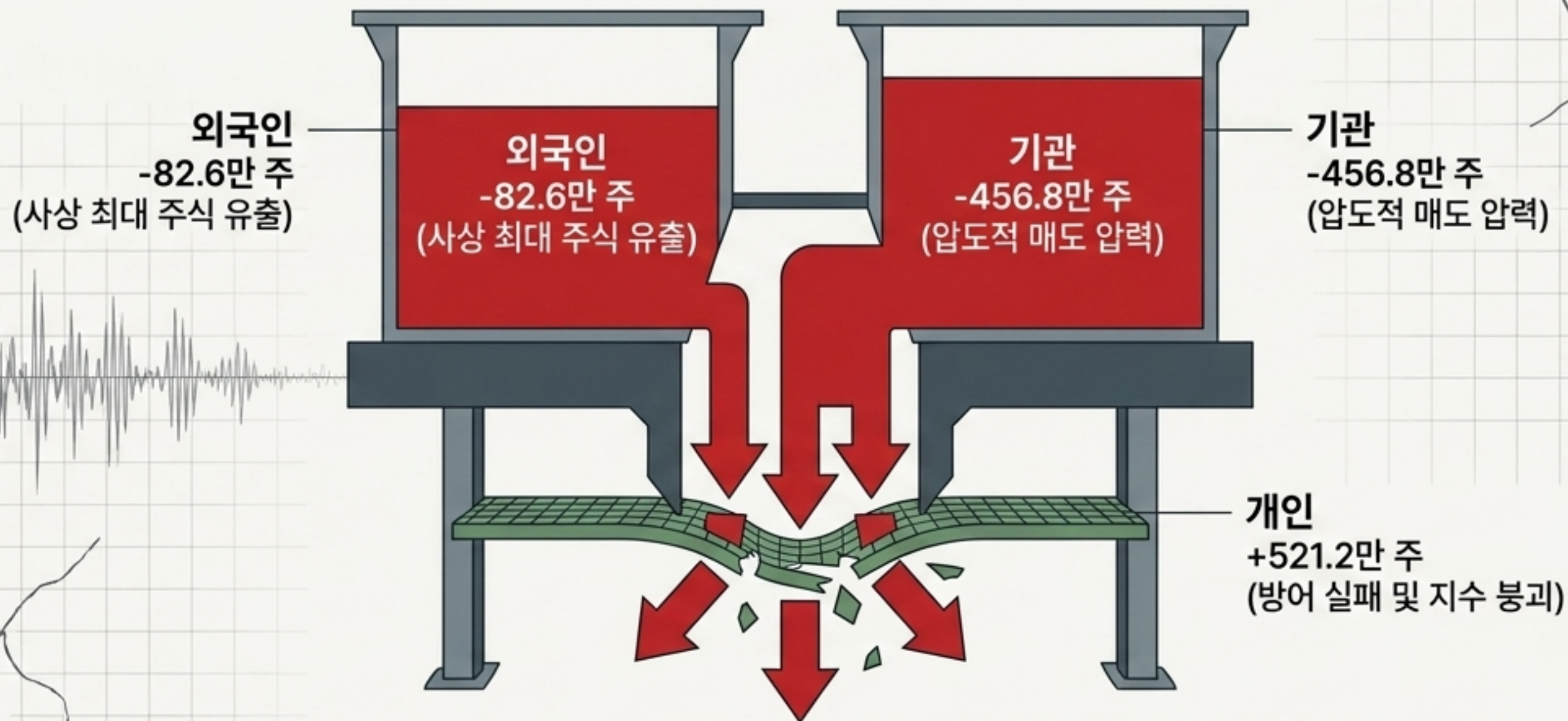
791.84 (-4.53%)

800선 붕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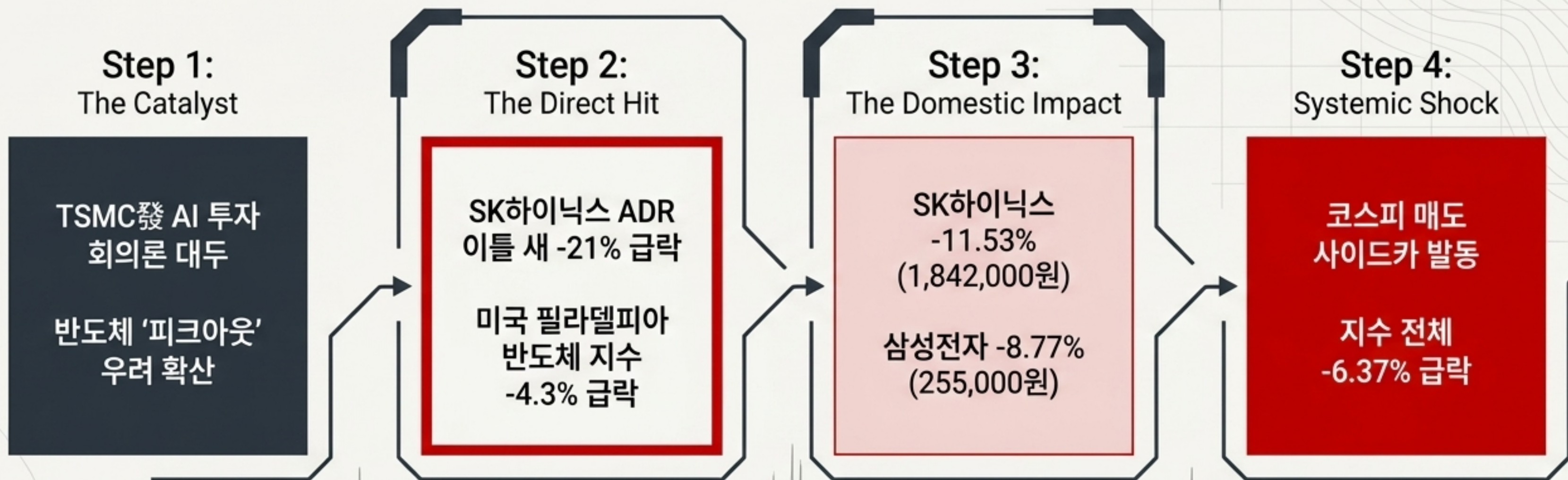
전일 역대급 장중 변동성에 이어, 오늘 지수는 3분의 1 토막 났으나 체감 변동성은 美 나스닥의 3배에 달하는 극단적 스트레스 장세 시현.

수급의 붕괴: 사상 최대 규모의 기관·외국인 투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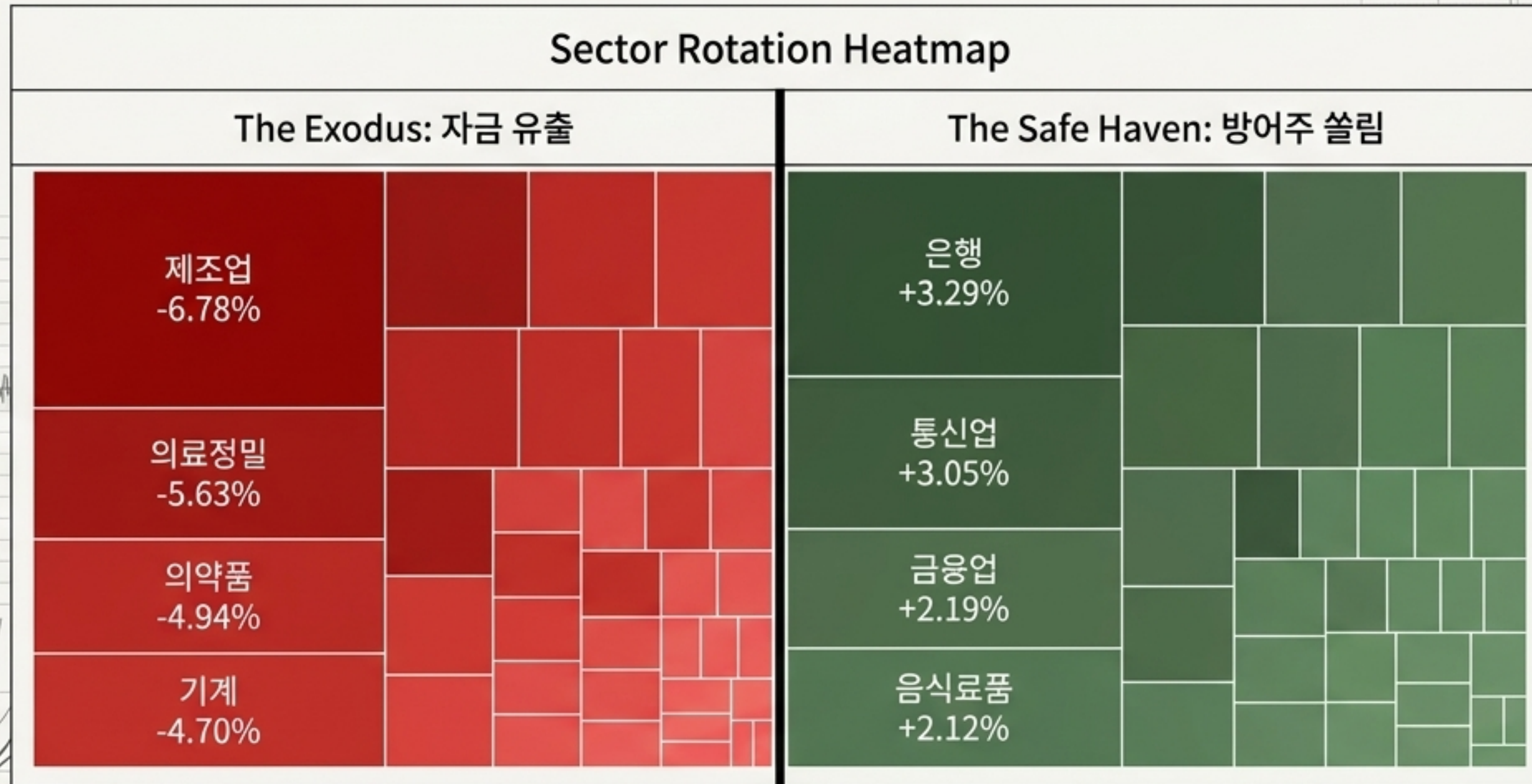


금리 인상 우려와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 겹치며,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증시가 외국인 자금 이탈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.

반도체 쇼크의 연쇄 반응 (Chain Reaction)



자금 대피처: 기술·제조업 엑소더스와 방어주 쏠림



시장 붕괴 속에서도 은행, 통신 등 전통적인 고배당/방어주 섹터는 오히려 3%대 강세를 보이며 극단적인 섹터 차별화가 진행 중입니다.

글로벌 단층선: 미국 전통주의 선방 vs 아시아 기술주의 붕괴

	[US] 미국 증시	[Asia] 아시아 증시
Market Indices	다우존스 +0.58%, S&P500 0.00%	KOSPI -6.37%, 닛케이 -2.8%
Primary Drivers	부동산(+7.42%), 에너지(+2.00%) 강세	키옥시아, 이비덴 등 AI 반도체 매도 폭풍
Capital Flow	K-뷰티 글로벌 투자 확대 등 선별적 유입	한국, 아시아 최대 규모 외국인 주식 유출

Key Insight: 뉴욕 증시는 AI 반도체(나스닥 -1.5%)의 하락을 대형주/전통주가 방어해 낸 반면, 기술주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증시는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했습니다.

FICC 시장 동향: 안전자산 및 인플레이션 헷지 수요 급증



국채 10Y

4.557% (+5bp)

FOMC 매파 기조 반영



원/달러 환율

1,479.37원 (-5.30원)

달러 약세 속 원화 강세



WTI 원유

\$79.83 (+\$2.62)

감산 기대-중동 긴장



금 (Gold)

\$80 (+\$18)

안전자산 선호 지속



비트코인

\$67,350 (+\$1,240)

ETF 순유입 지속

다가오는 촉매: 빅테크 실적 발표와 변동성 극대화 구간

7/17 - 7/21 (현재)

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에 따른
밸류에이션 재조정 구간

7/22 (수)

🇺🇸 **TSLA (Tesla) 실적 발표**

🇺🇸 **GOOGL (Alphabet) 실적 발표**

7월 22일 발표될 AI 관련 빅테크의
가이던스가 '피크아웃' 우려를 불식시킬지,
혹은 구조적 하락을 확정 지을지
결정하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.

12월 예정

미국 주식 하루 23시간 거래 도입
(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 구조 변화 예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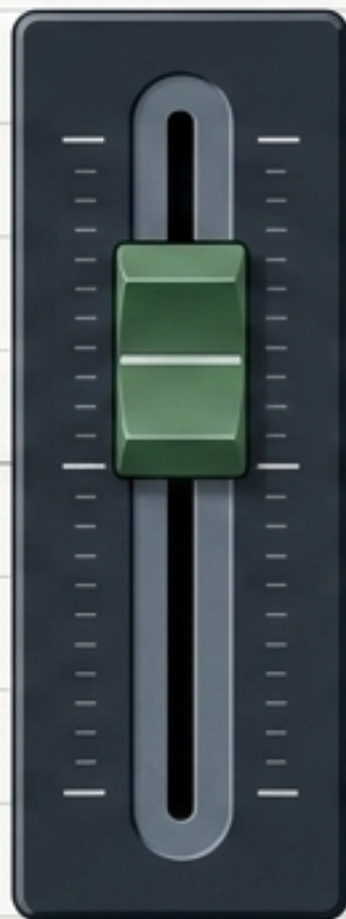
대응 전략 (Action Plan): 변동성 돌파를 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

방어주 및 대체자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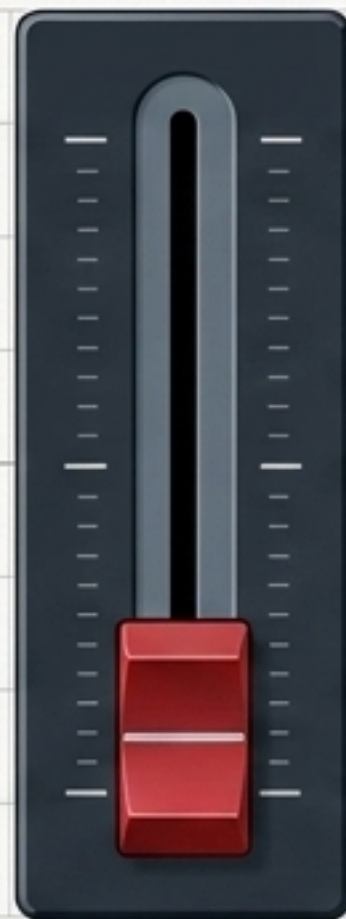
- 은행/통신 등 고배당주
- 원자재(금), 비트코인 롱 포지션 확대

현금 비중



- 실적 발표 전후 극심한 변동성 대비
- 유동성 확보

고밸류 기술주



- AI/반도체 섹터 비중 축소
- 실적 기대감에 따른 탄력적 공매도 운용 검토

시장의 패러다임이 성장(Growth)에서
방어(Defense)와 생존으로 전환되었습니다.
선제적 자금 이동만이 수익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.